

도 사업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앞장

어류이동병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농기계 수리 서비스
찾아가는 국악공연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와 농식품인력개발원, 도립국악원, 도립미술관 등 전북도 소속 4개 사업소가 주민 밀착형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란 지역, 신체, 경제적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질병으로 폐사의 아픔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류이동병원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어류이동병원원은 접근성이 떨어져 쉽게 질병의 진단과 사육관리 지도를 받지 못했던 지역까지 찾아가 양식생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기술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감염 확산을 사전에 대처함으로써 양식업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어업현장을 찾아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수리,점검해주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 중이다.

군산, 고창, 부안 3개 시,군에 5개반을 편성해 3월부터 월 1~2회씩 운영



완주군민의 날 기념식

지난 12일 완주군 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3회 완주군민의 날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도·군의회, 재경완주군민회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진 도내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용 기자재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의 영농현장을 찾아다니며 농기계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8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익산, 김제, 남원 등 7개 시,군을 방문해 이앙기 등 봄철에 주로 사용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가당 연 5만원 이하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한 영농현장에서 2인 1조로 편성된 농기계 전문교관과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농기계 자가

점검, 정비, 비수기 보관 관리요령,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게 된다.

도립국악원은 지역 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전통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펼치고 있다.

20명 내외의 소규모 공연단을 꾸려 복지시설과 학교, 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공연함으로써 도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평소 멀게 느껴지는 국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장애우 및 다문화가족'을 초청, 해당 기관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식사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다. 도립미술관은 도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을 운영한다.

올해도 12회의 기획전을 마련, 도립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를 엄선해 도내 시,군에 전시하되 해당 시,군의 문화적 풍토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주제를 설정하고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도민들이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접하고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다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방문의 해 전국사진공모전

8월 1일~17일 도착분 접수... 1인당 4점 이내

전북도는 전북방문의 해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작수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하던 전북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히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는 기존 사진전과 차별화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생동감 있고, 특색 있는 사진을 엄선해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017 FIFA U-20 월드컵과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올해는 전국의 사진작가 및 사진애호가들의 많은 방문이 기대돼, 경기 관람과 함께 전북

곳곳의 다양한 매력들이 카메라에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수는 출품자 1인당 4점 이내로,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7일 도착 분으로 접수를 받고 8월 19일 전문 사진작가의 엄정한 공개 심사를 통해 시상 작품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작품은 총 80점으로 금상 1점 500만원, 은상 2점 각 200만원, 동상 3점 각 100만원, 가작 4점 각 50만원, 입선 70점에 각 20만원으로 총 2,80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육성 교육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집중 육성 위해

전북도가 다품목 소량 생산, 개별 유통구조를 통합해 농산물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유통시장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시,군 통합마케팅은 기존 농산물을 시,군 지역농협, 법인 등 유통조직들이 개별적으로 출하했던 것을 한 개의 조직으로 통합해 전문화된 마케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농산물 판매 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마

케팅 전문가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마케팅 역량 강화교육은 13개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실무책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운영하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농산물 마케팅 이론과 전략, 최신 소비 트렌드에 따른 대응방법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전문마케터 양성과 다양한 판매방법으로 올해 통합마케팅 조직 매출 목표액 3,250억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재용 기자

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59명 선정

'2017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에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 59명이 선정돼 국비 융자금 총 113억8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를 선정해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중 영농 기본역량과 경영능력에 대한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의 영농규모 확대자금을 연금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전국 식품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전국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식품위생업체 점검률, 합동 단속 참여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위해식품 회수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관표창 및 포상금을 수상하게 됐다. /인재용 기자

도내 일원에서 '다문화 주간 행사' 추진

전북도, 15일~23일 다문화 사진전·음식체험·인형극·백일장 등 진행

전북도가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맞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다문화주간을 기념해 15일부터 23일까지 도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위해 다문화 사진전, 백일장, 순회 인형극 공연,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음식체험 등을 진행한다.

다문화 주간 첫째 행사로 도청과 도의회 로비 1층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다문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가족 사랑'을 주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랑을 꽃피운 다문화가족들의 가족사진이 담긴 다문화가족 작품 42점이 선보이며, 15일 오후에는 다문화 음식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친구 코코리' 인형극 공연도 진행된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연계해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34곳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8개국(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세계인의 날은 지난 2007년 '채한외국인차우기분법(제19조)'에 의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로 지정했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제정했다.

전북도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9조)에 의거 다문화주간을 설정해 도민과 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인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다문화가족의 사진 갈등예방 및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사업',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사업 등 20여개의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10회 다문화 어울림축제는 6월 24일 무주 태원도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